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1> 입제의 '할' 과 덕산의 '방'

중국 당나라 시대 입제(?-867) 스님은 학인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공부를 점검할 때 큰 소리를 내지르는 '할(喝)'을 많이 쓰고 덕산(780-866) 스님은 주장자로 후려치는 '방(棒)'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유명한 입제의 '할' 과 덕산의 '방'을 <벽암록>에서 "덕산 스님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주장자의 모습은 마치 소나기 빗방울 쏟아지듯 하고, 입제 스님의 고함소리인 '할'은 천둥이나 벼락 치듯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입제의 '할' 과 덕산의 '방'을 <선가귀감> 79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臨濟喝 德山棒 皆徹證無生 透頂透底 大機大用 自在無方 全身出沒 全身擔荷 退守文殊普賢大人境界 然據實而論 此二師亦不無偷心鬼窟

생멸이 없는 도리를 철저히 증득하여 생사의 맨 꼭대기에서 맨 밑바닥까지 온갖 인연을 꿰뚫고 아우르면서 법을 쓰는 것이 거침없고 자유자재하여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이 입제의 '할' 과 덕산의 '방'이다. 온몸으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온몸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책임지면서 문수와 보현의 경계를 지켜내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입제와 덕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했다.

입제는 어려서 출가하여 경전을 보다가 황벽 선사 밑에 3년 동안 가 있을 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주 스님이 "너는 왜 황벽 선사에게 불법의 참 뜻을 묻지 않느냐?"고 하니, 그 말을 듣고 황벽을 찾아가 '불법의 참뜻이 무엇 입니까?'라고 물었다. 갑자기 황벽은 주

장자로 입제를 후려쳤다. 호되게 주장자를 맞고 내려온 입제는 목주의 권유로 다시 황벽을 찾아 불법의 참뜻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다짜고짜 주장자로 입제를 내려칠 뿐이었다. 목주의 간절한 권유로 그 다음날도 황벽을 찾아갔으나

또 주장자만 실컷 얻어맞고 말았다. 까닭도 모르고 매만 맞은 입제가 황벽과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황벽은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대우는 자신을 찾아온 입제에게 "황벽 선사께서 요즘 무슨 법문을 하시던가?"라고 물었다. 입제는 세 번이나 주장자로 얻어맞은 사실을 말하고 자

자유자재하여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이 '할' '방' 시비 분별 없는 본디 그 자리 단숨에 깨치기 위험

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그처럼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때 대우가 "황벽 스님께서 자네를 위하여 그처럼 애를 썼는데도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라고 하자, 이 말에 크게 깨진 입제는,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군" 하고 중얼거렸다. 대우가 "아까는 잘못이라 하더니 이제는 웬 큰소리인가?" 야단치니, 입제는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번이나 쥐어박았다.

그 뒤 입제는 황벽 스님에게 되돌아가 그의 법통을 잇고 가르침을 퍼기 시작하면서 입제종의 종조가 되었다. 입제 스님이 학인들을 다룰 때는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알게 하고자 '할'이란 방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자는 스물둘이나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선라의 지

리산 화상도 있었다. 그 밑으로 19세(世) 되는 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 고려의 나옹 왕사가 법을 받고, 석옥정공(石屋淸珩)에게서 태고 국사가 법을 받아 오니 그때부터 우리나라 불교는 입제종 범벅이 큰 절기를 이루게 되었다.

덕산은 어려서 출가하여 경에 두루 밝았는데 특히 <금강경>에 능통하여 그의 성씨와 함께 '주금강(周金剛)'이라고 불리었다. 하류는 도반들에게 말하기를 "경에서 보살행을 오랫동안 실천해야 성불한다고 말했는데 요즘 남방 스님들은 '바로 마음을 가리켜 단숨에 성불케 한다'라고 하니, 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겠소" 하고 길을 떠났다. 가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어떤 떡집에 들어가니 떡을 파는 노파가 "겉판에 든 것이 무엇 입니까?" 묻기에, 덕산은 "<금강경>을 풀이한 책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노파가 다시 말하기를 "<금강경>에서 '자나간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말문이 막힌 덕산에게 노파는 응답의 승선 선사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응답사를 찾아 간 그는 "응답(應答)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래인데 와서 보니 응도 없고 연못도 안 보이는 군" 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때 승선이 나오면서 "자네는 참으로 응답에 왔네"라고 말하자 덕산은 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날 밤 늦도록 법담을 나누다가 객실로 가려 하니 바깥이 깜깜하였다. 이에 승선이 초에 불을 붙여 내밀자 덕산이 받으려고 하니 승선은 입으로 훅! 바람을 불어 촛불을 꺼버렸다. 그 순간에 출연 크게 깨달음을 얻은 덕산이 승선 선사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승선이 "자네는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물으니, 덕산은 "앞으로는 제가

다시 천하 큰스님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덕산은 애지중지 메고 다니던 <금강경>을 풀이한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으며 이후로 응답의 법을 잇는 법제자가 되었다. 당나라 무종 때 일어난 법난을 겪은 뒤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을 없애고 불법행은 법당만 남겨두었던 덕산 스님은 학인에게 가르침을 줄 때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주장자로 잘 때려주었으니 뒷날 이 가르침을 덕산의 '방'이라고 하였다.

입제의 '할' 과 덕산의 '방'은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것일까? 생멸(生滅)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며, 시비 분별이 없는 본디 그 자리를 단숨에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모든 시비와 분별을 떨치고 단숨에 본지풍광(本地風光)의 도리를 사문쳐 깨우치게 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기에, 여기에는 대기(大機) 대용(大用)으로 온갖 인연을 꿰뚫고 아우르면서 법을 쓰는 것이 거침없고 자유자재하여 일정한 법칙이 없다. 온몸으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면서 온몸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참다운 지혜를 드러내어 문수보살처럼 살아가게 하고 끝이 없는 보살행을 구현하여 보현보살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대인(大人)의 경계이자 부처의 경계이다. 그렇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입제와 덕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처와 조사 스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도 근본자리에서는 그 자체가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는 소식이이다. 그러나 입제의 '할'이나 덕산의 '방'도 쓸데없는 짓거리로서 다 도깨비장난이 아니겠는가? 이 본지풍광은 모든 시비와 분별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것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시퍼런 칼날이니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계승으로 말한다.

熒爍寒光珠網水 寥寥雲散月行天
반짝반짝 하얀 물결 옥구슬이 흘러가듯 맑디맑은 푸른 하늘 흘러가는 저 달이여

■ 원소 스님(송승사 인월암)

관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3>

정신분석과 불교-3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성격의 삼원 구조이론이라고 한다. 원초아에는 인간의 모든 본능적 욕구와 추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하며 먹고 마시고 자는 것과 같은 모든 본능이 원초아에 속한다. 원초아에 자리 잡은 본능적 욕구는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아는 현실 세계와 접촉하는 요소로서,

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지 항상 감시한다. 이러한 자아와 원초아, 초자아 간의 부조화와 갈등이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아의 역할. 성격 구성 요소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간이 이성적·합리적이며 원초아와 초자아를 잘 중재해 현실에 적응하고 살려면 자아가 강화되어야 한다. 불교

면에서 불교에서는 무아를 설한다. 불교의 기본교리인 삼법인(三法印)에 나오듯 제법(諸法)이 무아(無我)다.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현상적 존재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정신분석처럼 자아를 강조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초월할 것을 강조한다. 자아를 제대로 형성하기 전에 무아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불교를 깊이 공부한 서양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즉 "노바디(nobody)가 되기 전에 somebody(somebody)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켄 윌버는 전개인(pre-personal) 단계에서 겪는 무아감과 초개인(trans-personal) 단계에서 이룬 무아는 외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기능과 역할, 수준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전개인 단계의 양상을 초개인 단계로, 거꾸로 초개인 단계의 성과를 전개인 단계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전/초 오류(pre/trans-

자아의 힘 약하면 원초아 초자아에 압도 문제 봉착 불교, 머무르지 않고 초월할 것 강조하는 무아 강조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아의 주된 임무는 원초아의 본능적 욕구와 외적인 현실 세계를 중재하는 일이다. 원초아의 맹목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려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다. 자아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욕구 충족 방법을 택한다.

초자아에는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와 사회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 규칙, 그리고 도덕과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원초아가 쾌락을 지향하는 반면 초자아는 안전과 완벽을 지향한다. 자아는 현실을, 초자아는 이상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성격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작동 원리 또한 서로 다르다. 원초아는 본능적 욕구를 당장에 충족시키려 하고, 자아는 현실에 맞추어 이를 저지하려 한다. 초자아는 원초아와 자아가 도덕과 이상, 완전성에 위

의 기본교리인 삼법인(三法印)에 나오듯 제법(諸法)이 무아(無我)다.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현상적 존재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정신분석처럼 자아를 강조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초월할 것을 강조한다.

자아를 제대로 형성하기 전에 무아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불교를 깊이 공부한 서양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즉 "노바디(nobody)가 되기 전에 somebody(somebody)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켄 윌버는 전개인(pre-personal) 단계에서 겪는 무아감과 초개인(trans-personal) 단계에서 이룬 무아는 외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기능과 역할, 수준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전개인 단계의 양상을 초개인 단계로, 거꾸로 초개인 단계의 성과를 전개인 단계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전/초 오류(pre/trans-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도량(道場)

도량(道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은 불도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집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통용되고 있다. 도량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成道)한 자리, 곧 보리도량(菩提道場)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bodhi-ma?da이다.

도량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과 보살이 항상 머무는 곳으로서의 도량으로, 예를 들면 미타불도량(彌陀佛道場)·법신불상주도량(法身佛常住道場)·문수도량·보현도량·관음도량 등이 있다. 불도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장소 또는 불상과 보살상을 모셔놓고 예불과 치성을 드리는 곳으로서의 도량은 절(寺)과 같은 뜻을 가진다.

불공·재례 등의 불교행사와 의식을 베푸는 자리

또한 도량으로 불려졌다. 이런 도량은 주로 자연적인 여러 재앙과 나라 안팎의 병란(兵亂) 등을 물리치고 나라 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행해졌다. 소재(消災)·기상영복(祈祥迎福)·인왕(仁王)·천제석(天帝釋)·신중·관정(灌頂)·불정(佛頂)·사천왕·문두루(文豆婁)도량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도량불사(道場佛事)는 고려시대에 많이 베풀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위의 도량 외에도 마리지천(摩利支天)·보성(寶星)·운양(雲陽)·무능승(無能勝)·천병신중(天神神衆)·지풍(止風)·운우(雲雨)도량 등이 열렸다.

김지연 기자

氣功지도사강좌(3박 4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난치병이 치유된다
통증의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통증 고친다

수련일정 | 68기 : 8월 23일(목) ~ 26일(일)
69기 : 9월 13일(목) ~ 16일(일)

디스크, 협착, 측만, 만곡, 허리통증, 어깨통증, 좌골통, 골반통, 관절통,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자율신경실조증, 불면증, 뇨실금, 수족냉증, 복부비만 등

- ◆ 물리치료, 약물치료, 척추교정, 침, 뜸, 부항을 통하여 다소 호전되었으나 진전이 없다.
- ◆ 유명하다는 곳을 다 다녔으나 당시뿐이고 노력해도 치유가 안 된다.

독일 동서의학병원에서 임상시험 인정증 획득!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각지에서 불자님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분회 :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 자리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2,500원 착불)

필름